

Fava 참가기

정 종 기 | 국립수목과학검역원 병리진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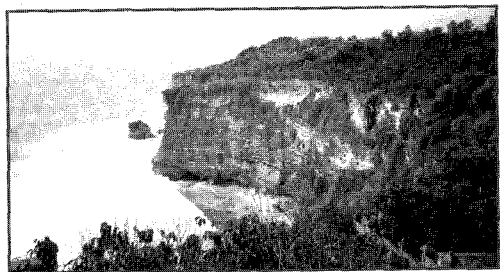
제 23차 아시아 수의사회 이사회가 2001년 10월 7일 인도네시아의 발리섬에서 열렸다.

이 회의에 본회 회장이신 이우재씨와 본인이 참석하여 토론하고 발표한 내용을 지면을 통해 보고드리기로 한다.

이 회의 참석을 위해 10월 5일 두사람이 발리섬의 수도인 덴파사 공항에 도착했을 때는 해가 거의 기울기 시작한 저녁 8시 30분경이었지만 적도에 가까운 열대 지방이라 그런지 아직 날은 밝았고 뜨거운 한낮의 열기가 식지 않고 있어 완전히 다른 세상에 온 느낌이 들었다. 덴파사 시내는 9월 26일부터 시작된 힌두교의 전통 축제인 Galungan 축제기간의 막바지에 들어 이곳 저곳에 전통의상을 차려 입고 신전에 음식과 꽃을 들고 공양 하러 가는 현지인들이 줄을 잇고 있었다.

발리섬은 인도네시아의 자바섬에 동쪽으로 연이어 있고 적도의 남쪽으로 8도쯤 떨어져 있는 작은 섬인데 크기는 우리나라 제주도의 약 3배정도로 여기에 약 270만명의 주민이 살고 있다 한다. 이 섬은 1960년대인가 “남태평양”이란 영화의 무대가 되어 많은 사람들의

기억에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바닷가 낙원으로 새겨져 있는 곳이기도 하다. 인도네시아 국민의 대부분이 회교도인데 반해 이곳은 주민의 90%가 힌두교를 믿고 있어 힌두교의 독특한 문화와 전통을 간직하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1970년대 이후로 이 섬은 세계적인 관광 휴양지로 개발되어 많은 여행객이 몰려 들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도착했을 당시에는 미국 테러 등에 영향을 받아서 인지 좀 한산한 편이었다.



아시아 주요 토의안건

아시아 수의사회 이사회는 발리섬 동남쪽에 있는 Sanur의 Grand Bali Beach Hotel에서 10월 7일 일요일 아침 9시경 시작되었다. 참석국은 개최국 인도네시아를 비롯하여 필리핀, 말레이시아, 중국(대만), 일본, 호주, 우리나라등 7개국이었으며 세계수의사회, 캐나다수의사회, 세계동물보호협회(영국)등에서도 참관단을 보냈다. 각 참가국별로 2000년, 2001년간의 수의사회 활동과 사업에 관한 보고가 있었고 아시아 각국이 공통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 문제에 관해서도 의견을 나누었다. 각국에서는 과거 거의 10년간 일본이 주관해 온 아시아수의사교육 프로그램(TPFAV)에 대해 그 효과를 칭찬하고 연장을 건의 하는 의견이 많았다. 일본수의사회 대표(Dr. Hiroshi Kanagawa)는 여기에 대해 일본 정부에 연장을 건의하였으나 일본 전체 경제의 어려움 때문에 현재로서는 2002년에 종결되는 이 프로그램이 더 이상 연장될 수 있으리라는 일본정부측의 보장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그리고 이번 회의의 주요 의제는 2002년 이후에 개최 예정인 아시아 수의사회 총회, 세계동물복지 선언문작성을 위한 국제회의등에 관한 제안과 안내등이었다.



말레이시아는 2002년 8월 23일부터 8월 28일까지 쿠알라룸푸르에서 제12차 아시아 수의사 총회를 개최한다. 이 회의시 OIE, APHCA 등 국제회의와 말레이시아 수의사회도 동시에 개최한다.

이 회의에서 논의될 주요 주제는 아래와 같다.

- ▶ Animal Health, Production and Nutrition
- ▶ Biotechnology
- ▶ Small and Large Animal Practices
- ▶ Poultry & Swine Medicine
- ▶ Exotic, Aquatic and Wildlife Diseases & Management
- ▶ Human-Animal Interaction and Animal Welfare
- ▶ Veterinary Public Health and Food Safety
- ▶ Veterinary Management and Economics
- ▶ Veterinary Profession and Education
- ▶ Emerging Zoonoses

필리핀 수의사회는 동물복지를 위한 만국선언문(Universal Declaration for the Welfare of Animals)을 작성하기 위해 2002년 5월15-17일 마닐라에서 유엔회원국 회의를 개최한다. 이 회의는 필리핀 정부가 주도하되 선언문 초안은 세계동물보호협회(The World Society for the Protection Of Animals)가 맡는다.

한국은 2004년 서울(또는 제주)에서 제13차 아시아수의사회 총회 개최를 위한 준비에 착수했다. 이 모임에서 토의할 주요 연제는 Human Animal Bond이며 이때 WSAVA/OIE 회의를 동시에 개최할 예정이다. 그리고 2000,2001년 아시아 각지역과 여타의 세계 각국에서 유행되고 있는 구제역의 방역방법에 대해 재고해 볼 필요가 있음을 상기시켰다. 종래 영국을 비롯한 유럽

연합국가들이 주장하는 살처분 일변도 방법을 모든 국가에 적용시키는 것은 최선의 방법이거나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아닐지도 모른다. 한국은 2000년에 발생한 구제역을 Ring Vaccination, 발생지역 주위의 가축에 대한 신속하고 과감한 살처분 제거, 지속적이고 광범위한 소독, 이동제한 등의 조치를 통해 구제역의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였으며 후속조치로서 우제류 가축의 전국적인 혈청검사와 백신접종동물의 전면 도태, 의심축의 발생 감시활동등을 통해 더 이상 국내에 구제역 바이러스가 잔존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였다. 그리하여 2001년 9월 OIE 심의결과 다시 이전과 같이 구제역 청정국가로 복귀하였음을 인정 받았다. 참석 회원국 여러분께 이에 대한 자세한 보고서를 배부하며 이는 차후 아시아 각국에서 유사한 발생이 있을 때 방역에 참고자료가 될것으로 확신한다.

기타 이사회에서 논의된 안건은 아시아 수의사회 활동을 보다 활성화 시키기 위한 방안, 회원국의 회비 납부와 재정문제, 연구발표등 활동에 대한 참여도 제고를 위한 방안, 인터넷 웹사이트를 통한 회원국 상호간의 정보,의견교환의 확대 방안 등이 논의되었다.

첫날 이사회의 안건 토의는 이로서 끝나고 다음날 동일한 장소에서 동물복지에 대한 Workshop이 있었다.

동물복지 Workshop

10월 8일 Workshop은 인도네시아 수의사 총회 프로그램의 한부분으로 진행되었다.

발표자 및 연제는 다음과 같다.

세계수의사회의 Dr. Garth McGilvray
(Codes of Recommendations & Minimal Standards for the Welfare of Animals)

필리핀수의사회 Dr. Enrique T. Carlos Jr
(Animal Welfare Code in Philippines with Reference to Pets)

일본수의사회 Dr. Hiroshi Kanagawa
(Animal Welfare Code in the Japan with Reference to Laboratory Animals)

캐나다 수의사회 Dr. Pearce Louisy
(Animal Welfare Code in Canada)

세계동물보호협회 Ms. Pei Feng Sui
(The Correlation between Animal Welfare, Culture, Religion and Philosophy)

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각국별 법규속에 있는 동물복지 내용을 일일이 열거할 수는 없고 각국간의 발표시 공감을 얻은 동물복지 관련 법령이나 선언에 포함되어야 할 몇가지 주요한 개념들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동물복지의 대상이 되는 동물의 종류가 개,고양이등의 애완동물이나 가축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인간을 제외한 모든 포유동물,조류, 파충류,양서류,물고기 또는 고통이나 불쾌감을 느낄 수 있는 모든 무척추동물에 까지 확대된다.

둘째, 동물의 학대방지(의도적 또는 태만으로 인해 동물에게 불필요한 고통을 주지 않는 것) 뿐만 아니라 인류의 도움에 의존하는 동물들에게 적극적으로 생존과 복지를 도와 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것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셋째, 실험 동물에 있어 가능한한 살아 있는 동물을 쓰지않고 이에 대체할 수 있는 방법개발에 노력할것이며 부득이 살아 있는 동물을 사용할 경우에도 동물복지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맺는 말

이번 본회의 아시아 수의사회 이사회의 참가는 아시아 각국 수의사의 연례적인 친선 및 정보 교환, 상호협력 등이 목적이긴 하였으나 보다 직접적인 것은 2004년 우리나라에서 총회를 개최할 경우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었다. 인도네시아에서 개최된 이사회를 보면서 느낀점은 1) 회의 좌석을 원형으로 배치하지 않고 사회자를 마주하여 일렬로 배치하여 서로 얼굴을 보며 토론을 하기에 부적합하였으며 2) 회의전 회의 자료준비가 부실하여 어느나라의 누구누구가

참석하는지 어떤 의제에 관해 어떤 의견이 제시 되는지 사전에 전혀 알수 없었으며 참가국에 따라서는 발언하는 영어가 이해하기 어려운 수준일 경우도 있어 충분한 의사소통을 할 수 없었다는 점 3) 회의 발언 내용을 모두 녹음하여 후에 정리하여 보내 준다고 하였으나 이는 회의가 끝남과 동시에 정리가 되었어야 할 사항이었음 등이 아쉬운 점이였다. 그 외 주최국인 인도네시아에서 각국 참가자들에게 발리의 전통무용, 디너등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준비하느라 많이 애쓴 흔적이 보였으나 개선의 여지가 많았다. 무엇보다도 성공적인 회의를 위해서는 사전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 빈틈 없이 회의 준비를 해야됨은 물론, 가능하면 보다 많은 회원국들이 참석하여 많은 연구의제를 놓고 활발한 토론을 벌일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주어야 하고 이를 위해 사전 홍보 및 섭외 활동이 필수적이라 하겠다. 이번 이사회 참석을 통해 아쉬운 점도 많았지만 배운 것도 많았다. 다가오는 2004년의 우리나라에서의 아시아 수의사회 총회가 우리나라 수의사의 활동을 아시아 각국에 알리고 아시아 각국 수의사와 보다 적극적인 친선교류를 맺을 수 있는 성공적인 계기가 되기를 빌면서 글을 맺는다.

대한수의사회

